

터너의 손 끝, LG전 연패 끝낸다



터너



KIA 오늘부터 3연전...올 맞대결 4전 전패
시즌 전환점...잔여 대결 12경기 남아 ‘최다’
터너 2패 설욕 기회...차명진 다시 선발 시험
‘도루 1위’ 박찬호, 상대 흔들 핵심 열쇠

터너의 ‘손’과 박찬호의 ‘발’이 LG전 첫 승리의 키다.
KIA 타이거즈가 21일부터 잠실에서 LG 트윈스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LG는 KIA의 남은 시즌 성적을 좌우할 중요한 팀이다.
19일 경기와 함께 올 시즌 일정의 절반을 소화한 KIA는 SK 와이번스, 두산 베어스, 한화 이글스, 삼성 라이온즈, KT 위즈 등과 9차례 맞대결을 벌였다. 키움 히어로즈, NC 다이노스, 롯데 자이언츠와도 8번의 만남을 가졌다.
하지만 LG와는 4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다. 개막 시리즈에서 만나서 2연전, 지난 4월 23·24일 잠실에서 두 차례 더 격돌했다. 4월 25일 경기는 우천 취소되면서 올 시즌 반환점을 돌 때까지 4차전만 진행했다.
9개 팀 중 가장 많은 12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LG는 KIA 성적의 키를 쥐고 있는 팀이다. 여기에 아직 KIA가 LG전에 승리가 없다는 부분에서도 두 달 만에 펼쳐지는 이번 맞대결이 중요

하다.
앞선 4경기의 패는 모두 선발 투수에게 돌아갔다.
개막전에서 양현종이 6이닝 1실점의 호투에도 0-2로 끝나면서 패전 투수가 됐었고, 터너는 두 차례 등판에서 모두 패배를 기록했다. 양승철의 선발 데뷔전 결과도 역시 패전 투수였다.
양현종이 나온 경기를 제외한 3경기에서 선발진이 소화한 이닝은 12.1이닝에 불과하다. 세 경기 선발진 평균자책점은 13.90까지 치솟았다.
21일 다시 한번 LG를 상대하게 된 터너는 앞선 등판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터너는 KBO리그 데뷔전이었던 3월 24일 1회부터 3실점을 하는 등 5이닝 8실점(7자책점)으로 진땀을 흘렸다. 잠실로 장소를 바꿔 치른 4월 24일 두 번째 경기에서도 4.1이닝 9실점(6자책점)의 패전투수가 됐다.
터너가 등판한 두 경기에서 5개의 실책이 기록되는 등 야수진의 도움도 따르지 않았다.

LG전의 나쁜 기억을 지울 수 있는 터너의 반전 투가 필요하다. 또 재충전을 위해 한 차례 선발 등판을 거른 차명진은 공격적인 피칭으로 설욕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
선발진의 부진도 아쉬웠지만 LG투수들을 상대한 타자들의 성적도 아꼈했다.
올 시즌 LG와의 4경기에서 KIA의 팀타율은 0.168에 불과하다. 21개의 안타로 8점을 뽑아내는 데 그쳤고 홈런은 없다. 8개의 볼넷을 골라내는 동안 31차례 삼진을 기록했다. 병살타도 4개가 나오는 등 답답한 공격의 연속이었다.
부족한 공격력 만회를 위해 ‘스피드’가 필요하다.
올 시즌 연속 안타와 장타가 잘 나오지 않고 있는 만큼 ‘한 루’를 더하기 위해 공격적인 주루가 필요하다. 그 중심에는 박찬호가 있다. 박찬호는 20일 경기 전까지 16차례 베이스를 훔치면서 삼성 김상수와 도루 부문 공동 1위에 올라있다.
박찬호는 “올 시즌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서로 낯선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아직 LG전에서 안타가 없는데 (3볼넷 1삼진) 안타도 기록하고, 나가면 열심히 뛰어 팀 승리에 기여하겠다”며 “뛰는 게 재미있다. 상대를 흔들고 도루에 성공했을 때의 기분이 좋다. 한 루라도 더 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LG전을 앞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찬호

덕아웃 **T** 특특

신범수 “포수 짜증나게 하는 주자는 박찬호”

▲1.1이닝 남았습니다 = ‘임시 마무리’로 시작했던 문경찬은 팀의 확실한 마무리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8일 SK전에서 1이닝 무실점의 피칭으로 4-2의 승리를 지키면서 7번째 세이브를 기록한 그는 이 경기를 통해 평균자책점을 1.04로 낮췄다. 꿈의 0점대 평균자책점도 가능한 상황. 20일 경기 전 이에 대한 질문을 받은 문경찬은 바로 “1.1이닝 남았다”며 웃었다. 1.1이닝 무실점이 더해지면 문경찬의 평균자책점은 0.99가 된다. “투수 오래 하다 보니 바로 계산이 된다”며 웃은

문경찬은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 아직 전반기도 끝나지 않았다. 시즌 마지막까지 좋은 성적 유지하는 게 목표다”고 언급했다.
▲가장 짜증 나는 주자조 = 포수들에게는 짜증나는 주자 박찬호다. 20일 덕아웃에서 도루에 대한 질문을 받은 박찬호. 옆에 있던 신범수는 “신경 거슬리게 하다가 투스트라이크 원볼 떨어지는 변화구 때 뛴다. 포수들이 싫어하는 유형”이라며 웃었다. 이에 박찬호는 “그래서 (다른 팀)포수 선배들이 인사를 안 받아주신다”라고 말해 사람들

들을 웃겼다. 신범수는 “달리기는 그렇게 안 빠르는데 도루 잘한다”며 “투수 파악을 잘하는 거 같다”고 박찬호의 도루 실력에 대해 언급했다. 박찬호는 “사실 달리기는 빠른 편이 아니다. 달리기로만 하면 (최)원준이나 김주환 선배가 빠르다. 스프링캠프 때 초 쏘겠는데 선배님이 가장 빨랐다”고 언급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사사구 = KIA는 올 시즌 ‘젊은 마운드’로 알려진 불펜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선발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차명진

이 잠시 휴식을 취한 뒤 22일 LG전에 선발로 재출격을 앞두고 있고 2군에서도 선발진들의 여필 무대가 전개되고 있다. 19일 KT와 퓨처스 경기에서는 좌완 김기훈이 6이닝 5피안타 9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기록했다. 20일 김기훈을 언급한 박홍식 감독 대행은 “어제 경기에서 김기훈이 좋은 피칭을 했다. 제일 중요한 건 무사사구다”라며 웃었다. 1군 무대에서 제구 문제를 노출했던 김기훈은 6이닝을 사사구 없이 막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재활을 끝내고 두 차례 등판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한승혁은 21일 NC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 선발로 나와 복귀 시점을 타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일고·동성고

황금사자기 16강

23일 각각 휘문고·포철고와 격돌

광주일고와 동성고가 제73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16강에 진출했다.
광주일고는 20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화순고와 대회 32강전에서 박시원의 스리런 홈런 등을 앞세워 9-0, 7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1회 2사에서 정도웅과 한지운의 연속 안타로 기회를 잡은 광주일고는 폭투로 선취점을 만들었다.
3회에는 3개의 볼넷을 얻어내 2-0을 만든 광주일고는 4회와 5회에도 각각 2점을 뽑으며 6-0의 리드를 잡았다.
그리고 6회 2사 1·3루에서 타진 박시원의 우월 스리런 홈런과 함께 콜드게임승을 완성했다.
마운드에서는 이승훈이 5.1이닝 4피안타, 2사사구, 3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광주일고는 23일 오후 2시 30분 휘문고와 16강 경기를 갖는다.
동성고도 지난 19일 열린 대전제일고와의 경기에서 9-0, 7회 콜드게임승을 장식했다.
‘난적’ 인천고와 1회전에서 솔로포와 함께 나 홀로 4타점을 기록한 최지강의 활약으로 8-6 승리를 거뒀던 동성고는 대전제일고와 경기에서도 장단 11안타를 뽑아내며 화력을 발휘했다.
3번 고승원을 시작으로 최지강-김재우-최성민으로 이어지는 동성고의 중심 타선이 모두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선발 김동은은 5이닝을 2피안타, 2사사구, 2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승리를 챙겼다.
동성고는 23일 오후 6시 포항제철고와 대회 8강 진출을 다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메시 “국가대표는 체질에 안맞아”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20일 브라질 미네이랑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남미축구연맹(CONMEBOL) 코파 아메리카 조별리그 2차전에서 파라과이와 1-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나자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허탈해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경기 연속 무승(1무1패)에 빠지면서 탈락위기에 몰렸다.
/연합뉴스

‘막강 화력’ 광주 FC 선두 굳히기

K리그2 16R...24일 수원 원정 16경기 연속 무패 도전

‘화력쇼’를 펼친 광주FC가 수원 원정을 준비한 다.
K리그2 광주는 24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수원FC와 2019 K리그2 16라운드 원정 경기

를 치른다.
A매치 휴식기를 잘 보낸 광주의 발끝은 매서워졌다. 광주는 앞선 부천FC와의 홈경기에서 4-1 대승을 거두며, 15경기 연속 무패행진 속에 리그

선두(승점 33) 유지에 성공했다.
무엇보다 ‘해결사’ 펠리페의 부활이 반갑다. 그 동안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펠리페는 복귀 2경기 만에 멀티골에 성공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측면 자원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부천전 선발로 나선 두현석과 김정환은 측면에서 스피드로 상대를 끊임없이 괴롭혔고, 교체 출장한 윌리안은 환상적인 단독 돌파로 득점에 성공했다. 여기에 올 시즌 프리킥으로만 세 차례 상대 골대를 뚫은 이우뜸

의 세트피스까지 더해 광주의 득점루트가 풍성해졌다.
광주는 수원FC와의 역대 전적에서 9승 4무 5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 5경기(3승 1무 1패)에서도 9득점 2실점으로 강했다. 하지만 올 시즌 수원FC는 꾸준하게 승점을 쌓으며 3위(승점 27점)자리에서 1위 광주를 6점 차로 추격하고 있다. 광주가 집중력 있는 승부로 16경기 연속 무패와 함께 선두 자리를 지킬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